

수영 열풍 광주의 민낯... '목욕탕 같은' 공공수영장

150만 도시 12개 불과 '인산인해'... 시민들 '수영 배우기 너무 힘들어' 마스터즈 출전자들도 연습장 못구해 '발동동'... 인프라 확대 나서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턱없이 부족한 광주의 수영 인프라를 구축,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대회를 유치할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역 내 공공수영장이 인구 13만 명당 1곳 꼴인 12곳에 불과해 모처럼 볼고 있는 '수영 열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대회 참가 선수들도 부족한 수영장 때문에 원활한 연습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내달부터 시작되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 선수들도 연습할 수영장이 부족해 광

주방문 입장을 최소화하는 등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은 동구의 동구 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2곳, 서구 광주 실내수영장·여성발전센터·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3곳, 남구 청소년수련관·빛고를 노인건강타운·다목적체육관 3곳, 북구 북구건강복지타운·우산수영장·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2곳, 광산구의 빛고을국민체육센터·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2곳 등 총 12곳이다.

수영장이 인구 13만 명당 1곳에 불과하다 보니, 일부 수영장은 수영인들 사이에서 '넓은 목욕탕'으로 불릴 정도다. 특히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광주에 '수영열풍'이 불면서 수영장 이용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서 10년 넘게 수영 동호회 활동을 하고 박오(39)씨는 "세계대회 유치 계기로 광주에 수영인프라가 확충 될 것 기대했지만, 경제대회 운운하며 1회 용 간이수영장을 만드는 것을 보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세계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가 관련 인프라 확충인데, 수영장 하나 짓지 못하는 수영대회를 왜 개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는 '저비용 고효율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개최를 내세워 기존 수영 시설을 재활용하고, 부족한 시설 3곳은 400억을 들여 임시 간이시설로 만들었다. 간이시설은 수영대회가 끝나면 50여원의 예산을 들여 철거된다. 수영장 시설을 최소화하다 보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습할 수영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탈리아 국가 대표 등은 이번 대회기간 동안 광주의 일부 공공수영장에 연습할 공간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또 8월부터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 선수들도 연습할 수영장을 찾지 못해 서울 등 타 도시에 머무르거나, 광주 방문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공공수영장 관계자는 "일부

국가의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해 왔지만, 모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영대회 개최 전에도 수영장 이용객이 많아 한계를 느껴왔는데, 대회 개최 이후 수영을 배우려는 시민이 크게 늘면서 포화상태다. 초등학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인 생존수영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수영장 관계자는 "수영장에 사람이 많다 보니 기존 이용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롭게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 중 상당수는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모처럼 찾아온 수영 열풍이 사라질까 걱정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좀 더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장에 버린 담배꽂초 절도 행각 '딱 걸렸네' 심야 커피숍 턴 10대 델미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심야 시간 커피숍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김모(18)군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월28일 새벽 3시에 광주 서구 농성동 장모(46)씨의 커피숍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A군의 인상착의는 확보했지만 A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 기록도 없어 추적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행히 A군이 범행 전 피우고 버린 담배꽂초에서 추출한 DNA를 구속 피의자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A군이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피에로 가면 쓰고 원룸 침입 시도

○-피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다가 택배를 훔쳐 가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24일 서울 관악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튜브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재상황'이라는 제목의 1분 29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피에로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사람이 원룸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출입문 앞에 택배가 놓인 어느 집 앞으로 걸어가 출입문에 귀를 들이던 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없었다"면서도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코리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선고

횡령금 대부분 도박 탕진.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골프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아직 반환하지 않은 86억5000만원도 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사 수입·지출 업무를 전담하며 횡령한 점, 범행 기간, 피해 액수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회사 측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재정 상태도 심하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고 일부를 반환했지만, 횡령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해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나주의 한 골프장 회계담당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상급자가 회계 전표만 검토하고 법인통장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회사통장 4개에서 자신의 계좌로 11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뒤 30억원만 재입금했다. 횡령한 돈은 회원권 분양 대금이나 운영비, 골프장 증설을 위한 대출금 등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도 낮춰라" 축사에 물뿌리기. 연일 광주 전남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광주 북구청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장승동의 한 축사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축사지붕에 물을 뿌리고 있다.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141곳 적발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12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한 곳이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9곳, 시설기준 위반 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5곳 등의 순이다. 전남에선 모두 23곳이 적발됐는데 건강

진단미실시 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시설기준 위반 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위반 장소별로는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조리·판매업체가 67곳으로 가장 많았고,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이 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이 26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멍조끼 안 입고 음주남시 '위험한 낚시배들'

행안부, 위반 사항 146건 적발. 배에서 술판을 벌이고 구멍조끼를 입지 않는 등 낚시배 안전 의식이 여전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해상낚시 안전관리에 대해 경찰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수년간 낚시배 사고를 계

기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허위 입·출항 신고,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 20건은 형사고발 조치했고 낚시배·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한 업자 11명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유어장(가두리) 낚시터 시설기준 위반 등 25건은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고 낚시

배 신고확인증 미제시·구멍조끼 미착용·음주 등 44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상 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 46건에 대해서는 시정·통보 조치를 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39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자체 소속이 27명이고 해경이 5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소속은 7명이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삽니다.010-6834-7400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